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
자료문의 : 윤상흠 무역정책과장(02-2110-4829), 이윤진 사무관(5316)
유성우 자유무역협정팀장(02-2110-5390), 장미연 사무관(5394),

한미 FTA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지원방안

2012. 3. 14

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
Ⅰ. 한미 FTA 기대효과

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('11.8월 경제적효과 재분석)

1 거시경제 효과

□ **GDP, 소비자 후생, 고용, 수출입 및 무역수지, 외국인 투자** 등 전 부문이 FTA로 인한 **증가효과 수혜**

○ (**실질GDP**) 단기적으로 0.02%, 장기적으로 5.66%(생산성 향상 고려) 증가

○ (**소비자 후생**) 단기적으로 5.3억불 증가(생산성증대 고려 시 322억불 증가)

○ (**교역**, 향후15년간)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1.4억불,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7.7억불 확대

○ (**고용**) 35만명 증가 : 제조업(81.6천명↑), 서비스업(269.2천명↑)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,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로 농어업 취업자 증가(0.5천명↑)

○ (**외국인투자**, 향후10년간) 연평균 23~32억불의 FDI 추가 유입

2 제조업분야 세부효과

○ (**수출입**) 향후 15년간 對미 수출이 연평균 12.9억불, 수입은 7.1억불 증가하여 5.7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
- 對세계 수출도 연평균 31.7억불, 무역수지 흑자가 30.3억불 크게 증가

○ (**생산**) 향후 15년간 제조업 전체 연평균 8.8조원 수준 증가

- 자동차(2.9조원), 전기전자(2.0조원), 화학(0.9조원) 순으로 증가 효과 큼

【한·미 FTA 체결의 제조업 효과(15년 연평균)】

산업	對美 무역(백만$)			對세계 무역(백만$)			생산증가 효과(억원)
	수출	수입	무역수지	수출	수입	무역수지	
자동차	722	97	625	1,171	41	1,131	28,813
전기전자	161	145	16	826	△32	858	20,490
섬유	105	24	81	138	13	125	3,006
일반기계	58	89	△31	179	28	152	5,607
화학	46	135	△89	311	21	291	9,007
철강	7	2	5	34	△6	40	5,073
기타	186	219	△34	508	75	433	15,695
제조업전체	1,285	711	573	3,167	138	3,029	87,691

2 업종별 기대효과

1 **[자동차/부품]** **관세철폐**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, **완성차 및 자동차부품**의 **對美 수출**이 더욱 확대될 전망

○ 경쟁국 대비 '11년 1,270만대 규모의 **미국 자동차 시장**(수입비중 22.2%, 관세 2.5%)에서 **시장선점**에 유리한 입지 확보

○ 일본, 유럽업체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**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승**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

* 국산차 및 일본차 미국시장 가격비교 (2011년 기본모델 기준, 출처 :Kelly Blue Book)
- 현대 Accent (1.6) U$13,846 vs 도요타 Yaris (1.5) U$14,019 → 1.25% 차이
- 현대 Sonata (2.4) U$19,039 vs 도요타 Camry (2.5) U$19,580 → 2.84% 차이

○ **관세가 즉시철폐되는 부품**은 대미 부품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

*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(억불) : ('07)28.4→('08)27.0→('09)21.3→('10)41.2→('11)50.2
* 자동차 현지생산 비중(%) : ('07)27.3→('08)28.4→('09)31.9→('10)47.1→('11)55.9

- 우리 자동차업계의 **미국 현지생산 경쟁력**이 강화될 뿐 아니라, **미국 완성차업체로의 부품 수출**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

2 **[섬유]**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,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통해 **한국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** 가능

○ 우리나라 섬유류 주요 수출품목인 화섬, 직물 및 편직제품 등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증대 가능

* 미국 섬유관세율(가중평균기준, %) : 13.1%

(사례) 양말가격 0.65$/pair가 13.5% 관세 즉시철폐시 0.08$(0.57$/pair)이 낮아져 중국산 양말(0.44$/pair) 대비 가격차(0.21$→0.13$)가 낮아짐

○ 한편, 고급 섬유류는 한·미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로 고급 생산기반 확대가 예상되고, 아국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제품 고급화 노력에 촉진제 역할 기대

* 아국은 소재가공제품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상태이나, 첨단 신소재 및 브랜드력은 선진국보다 열위

3 **[전기전자]** 냉장고, LCD, LED TV 등 가전제품의 對미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전자의료기기, 방송통신장비 및 관련 핵심부품 소재의 수입 증가 예상

○ **대형냉장고**가 對미 가전수출에서 **가장 큰 수출 수혜품목** 예상

(사례) A사 프리미엄 냉장고의 경우 1,526불로 관세(1.9%) 철폐로 약 29불의 가격이 하락되어 로컬 브랜드의 동급(1,603불)와의 가격격차 확대

○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TV의 3.9~5%의 관세철폐는 LCD, LED에 이어 3D TV도 독보적인 시장우위 점유 예상

* 칼라TV 및 부분품 對美 수출액('11년, USD) : 163백만불

4 **[기계]** 단기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**대미 수출 증가 및 부품수입 단가 절감** 예상, 중장기적으로 한미 기술협력 강화도 기대

○ 공작기계, 밸브 등 주요 장비 위주로 연간 약 2.9억불의 수출 증대 및 액정 디바이스, 레이저기기 등 첨단 메카트로닉스부품 중심으로 기존 수입선(日, EU 등)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

(사례1) A사 공작기계(수직형머시닝센터) 경우 미국 관세(4.2%)가 철폐되면 수출가격 85.7천불이 82천불로 인하되어 일본 OKUMA사의 91.5천불에 비해 가격경쟁력 향상
(사례2)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분품 수입이 연간 7천만불(무관세품목 제외시 4.5천만불)에 달하는 B사는 관세 철폐시 300만불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

○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 **기계류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확대**가 예상되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역할이 제고

5 **[기타 업종]**

○ (**석유화학**) 합성수지(ABS 수지, PP, PS) 등 **비에틸렌계열 범용제품 중심**으로 가격경쟁력이 제고하여 이에 따른 **수출 증대 기대**

(사례) ABS 수지(2,347불/톤)의 경우, 관세(6.5%, 3년) 철폐로 가격이 153불 하락, 일본산(2,691불/톤) 대비 가격경쟁력 증대 ('10년 평균 수출가격 기준)

○ (**정밀화학**) 화학제품의 미국 관세율이 낮아 **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**이나, **염료 등** 비교적 관세가 높은 범용 제품 중심으로 **수출확대** 전망

○ (**철강**) 기 무세화되어 FTA의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나, 대미 수출의 안정적 유지와 중장기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 기대

Ⅱ. 한-미 FTA 활용 지원 현황 및 필요성

□ 기업들은 한-미 FTA와 한-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기대는 타 FTA 대비 상당히 큰 편

* 중소기업이 체결된 FTA 중 가장 관심을 갖는 FTA ('11년, 무역협회, %):
  - (한-EU) 47.2 (한-미) 32.6 (한-아세안) 6.9 (한-인도) 3.4

○ 더불어, 유로존 위기 등 불리한 세계 경제여건의 타개수단으로써 FTA 활용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
* FTA체결국과의 교역은 對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시 1.3~1.8배 높게 성장
*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('10, %): (비준) 35.4 (추진중 FTA 모두 발효 시) 85.9

□ 반면, 복잡한 협정내용과 절차로 인해 우리기업의 FTA활용 역량은 높지 않은 편

○ 중소기업의 경우 FTA를 활용하기 위한 ① 정보획득·이해 능력과 ② 적용·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

- 특히,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원산지증명 및 사후검증 등 활용절차와 방법의 복잡성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

* FTA특혜관세 미활용 이유('10, KIEP, %): 이용방법을 모름(38), 번거로워서(14.1)
* FTA활용 애로사항('11년, 무역협회, %): 활용절차 복잡(28.6), 자체 시스템 구축(17.1)

○ FTA 관련 부처·기관이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, 지원이 범주화, 차별화되지 못해 기업의 정보접근에 한계

-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에 산재한 기업의 경우, 수도권 소재 기업 대비 FTA 활용에 더욱 애로

□ 한-미 FTA 발효 초기부터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

○ 기업이 스스로 한-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* 하고,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 지원노력 필요

* 기업이 FTA지원에서 바라는점('11년, 무역협회, %):
  FTA정보인프라 구축(30.1), FTA시스템 구축(29.4), FTA교육(20.9)

Ⅲ. 한-미 FTA 활용 지원 방안

1 기업중심형 민·관 합동 FTA활용지원체계 구축

○ 「FTA 무역종합지원센터」를 신설하여 FTA활용 단일 지원창구 마련

-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FTA관련해 민·관 합동*으로 기업애로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직접컨설팅 지원

* (관계부처) 지식경제부, 관세청, 중기청 등 (유관기관) 무역협회, 코트라 등
* 3.12일부터 FTA활용기업 방문 컨설팅을 개시하여, 성공사례 창출 및 FTA 본격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

- 권역별 지역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고, 업종별·지역별 특화된 FTA활용지원 방안 마련·실행

* 업종별단체 간담회(3.7), 지역FTA활용지원센터(3.13) 회의 등을 통해 계획 구체화

2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제고

○ (설명회)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·입체적인 전국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 FTA센터와 연계 강화

* 지역별 FTA현장점검회의, 중기수출지원센터 교육, 현지바이어 대상 해외 설명회, 산업단지별 현장설명회 등

○ (FTA인력양성) FTA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, 관세사·원산지 관리사 양성 및 대학 내 FTA 정규강좌 개설

* 「FTA School」(무역협회)를 통한 전문가 육성, FTA활용전략 강좌 등
* 외대, 인하대 등 주요대학 관련학과에 41개 강좌 개설 지원('12년, 4억원)

3 중소기업의 FTA역량 강화

○ (정보획득·이해역량) One-Click 기능의 「통합무역정보시스템*」 구축을 확대(EU→ 미국 등)하고, 업종별 FTA 매뉴얼 제작·배포**

* 관세, 원산지표시, 규격, 기술표준, 인증, 환경규제 등 품목별(HS 6단위)로 제공
** 섬유,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활용방안, 분쟁사례 등을 내용으로 시범실시

○ (정보적용·관리능력)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한-미 FTA 수출기업 1:1 교육·컨설팅 제공 확대

○ (원산지관리역량)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·보급 및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컨설팅 팀 마련

-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기반의 FTA KOREA(KTNET), PC기반의 FTA-Pass(관세청)를 병행 보급

-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운 섬유분야는 '섬유·의류 FTA-Pass' 별도 보급

4 수혜업종 중심의 FTA 활용성과 도출

○ 한·미 FTA성과 조기창출을 위한 수혜 분야*의 수출확대 주력

* (자동차·부품) 「Korea Autoparts Plaza」 개최(5회), 「Auto-Parts Park」조성
(섬유) 뉴욕, LA 한국섬유 특별전 개최, Global Top 섬유전시회 참가
(생활용품) 월마트 등 현지유통망 개척

○ 미국(IT, 국방), EU(철도, 공항) 등 유망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

* 현지 조달전시회 참가, 주요지역 「조달지원센터(코트라)」를 통한 정보제공

○ 중장기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우주부품, 신재생 에너지 등 하이테크(High-Tech) 분야 수출 유망품목 발굴

5 FTA에서 파생되는 투자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

○ FTA를 계기로 한국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외국기업(美·EU 첨단기업, 中·日 부품·소재 기업 등) 대상 집중 IR 추진

-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, 전기전자, 무선통신기기 등 유망 업종의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유치 전략 수립

○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

- 국내 투자환경 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로의 U턴 촉진

* 중국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집중홍보 추진

- 코트라 내 국내정착을 돕는 One-Stop 콜서비스를 설치하고, U턴 기업 지원 가이드북 등 발간 추진